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 임직원 연말 지역화폐 50만원씩 쓴다

내달 초 6940명 34억7000만원 어치 구매...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임직원 6940명 전원이 34억 7000만원 상당 광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오는 12월 초 임직원 6940명을 위한 34억7000만원의 지역화폐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양제철소가 사들이는 지역화폐는 1인당 50만 원씩이다.

이 같은 내용은 포스코 노동조합이 지난 10일 타결한 '2023년 임금 단체 협약사항'에 포함됐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24일부터 입단협 단체교섭을 시작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까지 거친 끝에 지난 10월31일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10일에는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여 13일 조인식을 거쳐 입단협을 마무리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2021년 창립기념일을 기념해 지역화폐를 구매한 뒤 이번에 두 번째 단체 구매를 결정했다.

포스코 임직원들은 오는 12월6일부터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를 일괄적으로 받게 된다.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10% 할인 혜택은 지난 9월1일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서 종료됐다. 포스코는 1인당 50만원어치를 구매해 임직원들이 이와 같은 금액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기준 광양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은 6529곳으로, 지난해 말(5921곳)보다 10.3%(608곳) 증가했다.

광양사랑상품권은 지난 2008년 발행한 뒤 올해까지 3723억9400만원을 판매했다.

지난해 판매액은 198억원으로, 같은 해 8월부

터는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했다.

올해는 10% 할인 혜택 등으로 인해 600억원 판매를 조기 달성했다.

광양시는 내년 700억원 판매를 목표로 세우고, 할인 판매를 위한 예산안 70억원을 광양시의회에 제출했다.

광양시 측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임직원 전원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지역 자급의 역의 유출 방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올해 포스코 창립 이래 첫 노사분규가 발생했으나 파업까지 치닫지 않고 노사의 양보와 협력 속에 타결되고, 그 타결의 결과물로 지역상품권을 구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양시 산업현장이 노사의 화합 속에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광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광양시 노사민정협회의가 그 역할을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에서 오는 12월13일까지 열리는 혁신밸리 1주년 사진전을 방문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사진으로 만나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1년

12월 13일까지 사진전

고흥군이 개소 1주년을 맞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진전을 오는 12월13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전은 '고흥만, 스마트한 혁신밸리를 품다'라는 주제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1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혁신밸리 조성 과정과 청년보육생과 함께한 지난 1년간의 모습, 그리고 기후변화와 미래 농업을 생각하는 기상기후 사진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지난 2019년 3월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4년여간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준공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드넓은 고흥만 간척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서면서 전국에서 청년들이 모여 실습교

육을 받고 있다. 교육을 수료한 뒤에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직접 영농하고 있다.

고흥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개소 1주년을 맞아 혁신밸리 조성 과정과 청년보육생들의 활동 모습, 그리고 방문객들이 함께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내가 찾은 나만의 혁신밸리'라는 주제의 공모를 통해 청년농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스마트팜을 만나볼 수 있다.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1~2기 청년보육생과 실습교육 중인 3~4기 청년보육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전시장에서는 광주지방기상청과 함께하는 기상기후 사진전도 함께 열고 있다. 미래농업과 직접 연관된 기후변화를 들여다보고,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보성군 청사 정보 '한눈에'...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구축

음성안내...청각장애인 이용 가능

보성군이 청사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청사 배치도와 직원 배치도, 담당업무를 알려주는 비대면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보성군은 민원인이 자주 왕래하는 청사 정문과 민원실 입구에 종합안내 키오스크(무인 안내기)를 설치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종합안내 키오스크는 음성안내가 자동으로 재생돼 시각장애인도 음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객은 화면 터치로 손쉽게 각 부서의 좌석 배치와 담당자 사진,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서 출입구에 종이로 운영하던 직원 배치도도 키오스크로 변경해 민원인이 업무 담당자를 쉽게 확인하게 하고 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서별 키오스크는 조작개편이나 인사이동 후 종이 조작도를 교체·부착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단



보성군청을 찾는 한 민원인이 비대면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하고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청사 안내 시스템을 지속 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확대해 방문객과 직원들 모

두가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방문객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정기명 여수시장 남해안남중권 미래비전 모색

협의회 정기회 참석

여수시는 정기명 시장이 28일 열린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남해안남중권 미래상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날 경남 사천시 KAI 항공기 개발센터에서 개최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협의회장 김철우 보성군수) 2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내년 추진할 8개 신규 사업, 9개 계속사업과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남해안남중권 지역 기반시설 구축과 문화관광 협력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발전포럼 개최 ▲이순신 호국 순례길 역사문화 탐방 ▲친환경농업인 대회 ▲영호남 합창 페스티벌 ▲시·군 동호회 교류행사 ▲농·수특산물 라이브 커머스(생방송) 판촉 ▲농어촌일손돕기 교류활동 등 총 7건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수특산물 판촉 행사는 내년 초 여수에서 열린다.

생활체육교류 대축전과 문화예술제, '광역시티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9개 시·군 단체장들이 28일 경남 사천시 KAI 항공기 개발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누비고 투어' 등 계속사업도 내실 있게 다져 진행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최근 남해안권 종합개발청 신설 법안이 상정되고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남해안 권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9개 시군이 상생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 3대 특산품으로 만든 발효음료 선보여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심포지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가 순천 3대 특산품으로 만든 발효음료를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학술행사에서 선보였다.

센터는 최근 순천대학교가 주최한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심포지엄'에서 센터가 개발

한 발효음료 콤부차 '정원에 톱' 3종을 소개했다.

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시장 발굴을 위해 순천의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음료를 지난 8월 자체 개발했다.

순천의 특산물인 매실과 낙안 배, 월등 복숭아를 재료로 '정원에 톱' 3종을 만들었다.

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순천대학교 학생과 참석자들에게 '정원에 톱'을 소개했다.

센터는 콤부차 주요 소비층인 MZ 세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순천의 대표 농산물의 하나인 미나리 등을 활용한 발효음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농산물을 특산물화하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품질보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죽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